



KOREAN / CORÉEN / COREANO A1

Higher Level / Niveau Supérieur (Option Forte) / Nivel Superior

Thursday 18 November 1999 (morning) / Jeudi 18 novembre 1999 (matin)

Jueves 18 de noviembre de 1999 (mañana)

Paper / Épreuve / Prueba 1

4h

INSTRUCTIONS TO CANDIDATES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This paper consists of two sections, Section A and Section B.

Answer BOTH Section A AND Section B.

Section A: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Section B: Answer ONE essay question. Refer mainly to works studied in Part 3 (Groups of Works); references to other works are permissible but must not form the main body of your answer.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NE PAS OUVRIR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

Cette épreuve comporte deux sections, la Section A et la Section B.

Répondre ET à la Section A ET à la Section B.

Section A: Écrire un commentaire sur UN passage.

Section B: Traiter UN sujet de composition. Se référer principalement aux œuvres étudiées dans la troisième partie (Groupes d'œuvres); les références à d'autres œuvres sont permises mais ne doivent pas constituer l'essentiel de la réponse.

INSTRUCCIONES PARA LOS CANDIDATOS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En esta prueba hay dos secciones: la Sección A y la Sección B.

Conteste las dos secciones, A y B.

Sección A: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O de los fragmentos.

Sección B: Elija UN tema de redacción. Su respuesta debe centrarse principalmente en las obras estudiadas para la Parte 3 (Grupos de obras); se permiten referencias a otras obras siempre que no formen la parte principal de la respuesta.

A 부

다음 (a)와 (b) 중 하나만 골라 논평하라.

1(a) 첫째, 시조와 가사는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들인 장르이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당대의 현실에 비판적으로 대응하기에 가장 적절한 민족적 정체성을 지닌 장르였다. 평시조에서 볼 수 있는 강인한 선비 정신은 사대부들의 구미에 맞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해 가는 상황에서 자기 안위에만 급급한 일부 지식인들에 대한 각성제가 되기에 족했다.²⁰⁾ 사실시조와 가사에서 볼 수 있는 화제 처리 기능은 당대의 현실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던 지식인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적 기능을 하기에 족했다. 그것은 항일 저항적인 장르가 주로 시조와 가사였던 점에서 어느 정도 입증되어 가능한 논리이다. 따라서 단제가 국시의 두번째 요건으로 제시한 국수 정신의 표현에 부합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조와 가사는 우리의 민족적 호흡에 맞는 장르이다. 영국시는 영국 시의 읍적이 있고, 러시아 시는 러시아 시의 읍적이 있다. 어느 민족이나 '문학의 독립국을 건설'해야 진정한 민족 문학을 구축할 수 있다.²¹⁾ 따라서 시조와 가사는 우리 민족의 호흡과 맥박이 살아 숨쉬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시조와 가사는 가창 장르에 속한다. 애국 계몽 운동가들이 시가의 대중성에 관심을 가진 이상 그러한 가창성이 지닌 무서운 전송적 기능에 무관심했을 리 만무하다. 국민 대중을 고무시키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에 가장 훌륭한 장르가 다름아닌 가창력을 지닌 시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식이 당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논 학교창가」(대한매일신보, 1908. 7. 11)에서 엿볼 수 있다. 논자는 “가(歌)란 자(者)는 인(人)의 감정(感情)을 자극하여, 의기(意氣)를 고(鼓)하여 흥기 분발(興起奮發)케 하는 자(者)”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넷째, 시조와 가사는 모든 계층에게 익숙한 장르였다. 평시조와 양반 가사가 사대부들이 선호한 시가였다면, 사실시조와 평민 가사는 대다수의 하층민들이 선호한 시가였다. 따라서 시조와 가사는 양반 계층으로부터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인 장르였다. 따라서 국민 대중들이 선호하는 시가를 두고 새로운 장르를 선택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독자들로부터 야기될 수도 있을 형식적 거부감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통적인 장르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송현호 동국시계 혁명과 개화기 시론 (1997)

1(b)

별과 고기

황 금 찬

밤에 눈을 뜬다.
그리고 호수 위에
내려 앉는다.

5 물고기들이
입을 열고
별을 주워 먹는다

너는 신기한 구슬
고기 배를 뚫고 나와
그 자리에 떠 있다

10 별을 먹은 고기들은
영광에 취하여
구름을 보고 있다

별이 뜨는 밤이면
밤마다 같은 자리에
15 내려 앉는다

밤마다 고기는 별을 주워 먹지만
별은 고기 뱃속에 있지 않고
먼 하늘에 떠 있다.

(1967)

B 부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에세이를 써라. 공부해 왔던 3 부의 4 작품 중 적어도 2에 근거하여 이 답을 써라. 다른 작품들을 참조시킬 수는 있으나 답의 주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설과 사회비평

2a) 읽은 소설들 속에서 작가들은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현대사회를 어떻게 비평했는가에 대해 말하라.

또는

2b) 읽은 소설들 속에서 사회를 비판한 부분은 어떤 작가정신으로 인해서 일어났는가 말하라.

사랑과 문학

3a) “연애 감정은 사람이 꼭 한번 경험해야 한다.”

읽은 소설들을 참조해서 위의 말에 대해 논하라.

또는

3b)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은 없다.”

읽은 소설들을 참조해서 위의 말에 대해 논하라.

영웅주의와 문학

4a) 읽은 소설들 속에서 주변적 인물 중에 영웅적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읽은 다른 소설 속의 영웅과 비교해 보라.

또는

4b) 읽은 작품들에서 영웅은 옳고 적대자는 나쁘다는 공식적 관계가 어떻게 보여졌는지 논하라.

가난과 문학

- 5a) “부자가 꼭 행복하게 느끼고 가난한 자는 더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읽은 작품들을 보고 위의 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 논해 보라.

또는

- 5b) “가난이 자기 죄가 아니라지만, 게으른 자에 대한 벌이다.”

읽은 작품들을 보고 위의 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 논해 보라.

서술의 기교

- 6a) 읽은 작품들에서 작가는 내면적 서술형식을 통해 어떻게 등장 인물의 심리 묘사를 하고 있는가?

또는

- 6b) 읽은 작품들중 인상 깊었던 것들을 골라 이야기 내용 서술상 수사법(비유 등)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하라.

긴 에세이

- 7a) 에세이에 언급할 주제를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 어떤 예화(실례로 드는 이야기)를 썼는가를 읽은 에세이들에서 검토하라.

또는

- 7b) 읽은 수필들 중에서 인상 깊은 교훈적 면을 서로 비교 대조해 말해 보라.